

경북의사회가_만들어가는_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회보

2011 Autumn Vol.43

공지사항

2011년도 의사회비 납부요청 및 신용카드결제 안내
제31기 대한의사협회 기존공제회 가입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안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사이버 연수교육 수강 안내



경상북도 의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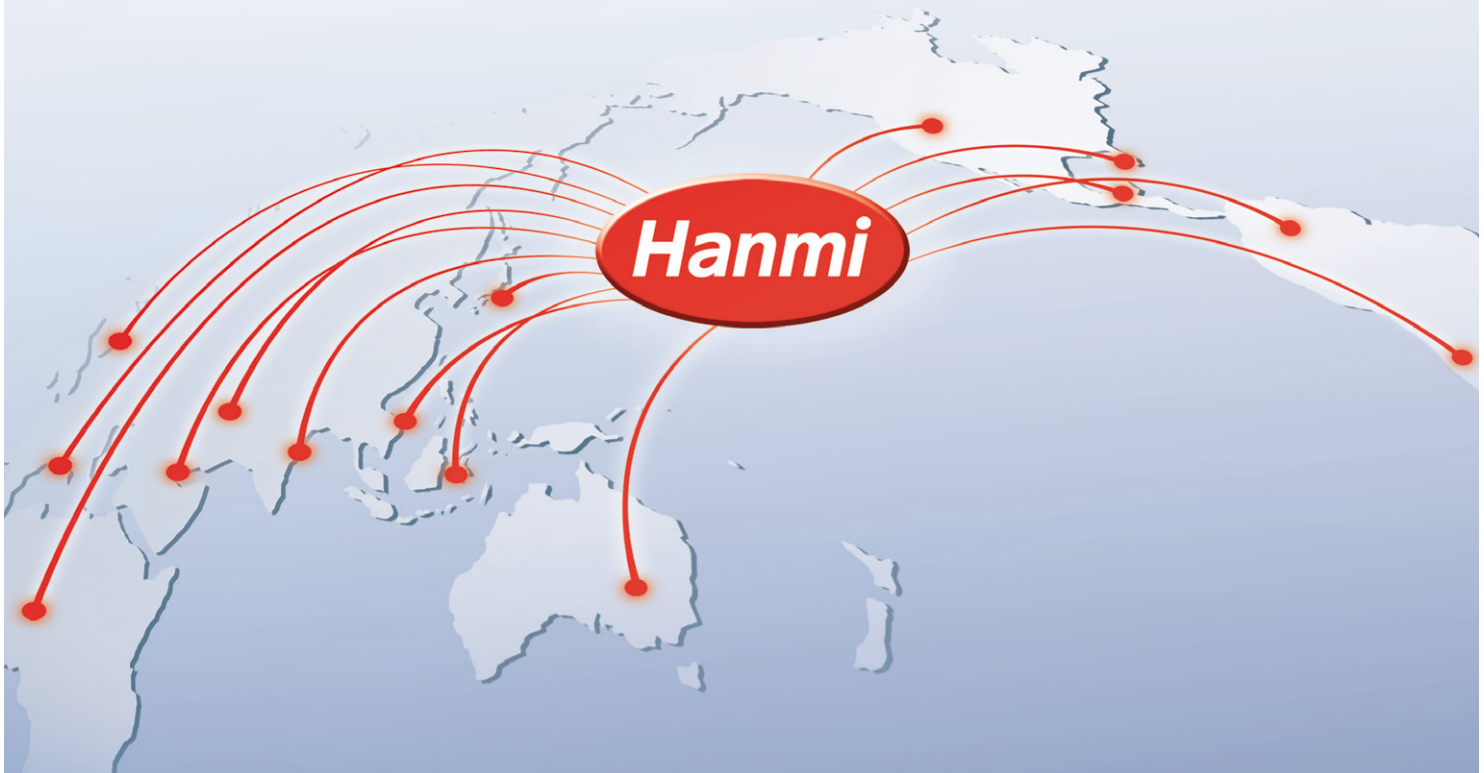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Esomeprazole

세계로 뻗어나가는 **Global 개량신약**

에소메졸[®] 캡슐
(Esomeprazole Strontium)



세계 최초 개량신약
신규염 Esomeprazole[®]
에소메졸[®] 캡슐 **20mg**
(Esomeprazole Strontium) **40mg**

- 한미약품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Esomeprazole Strontium 개량신약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50여개국에 특허출원했습니다.
- PPI중 가장 강력한 위산분비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 GERD치료에서 유지까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5



11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1년 10월 31일
 발행처 경상북도의회사회
 편집위원장 김재왕
 편집위원 김종영·문기혁·김종규·장태영
 71012-821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대현동)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에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 4 **특별기고**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 최경환 국회의원
- 5 **포토뉴스 · 회무소식**
제26회 경북 · 진북의사회 친선행사
- 9 **회무단신**
안동 성좌원 '한센인에 의료봉사'
본회, 전북 정읍의사회에 수해성금 전달
본회 고문단 · 중앙대의원 간담회 개최
대법원,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선거인단 투표)' 로 판결
경북행복재단 출범
심평원대구지원과 의료현안논의
경북 자원봉사센터와 MOU체결
- 11 **회원동정**
- 12 **공지사항**
2011년도 의사회비 납부요청 및 신용카드결제 안내
제31기 대한의사회 기증공제회 가입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안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사이버 연수교육 수강 안내
- 19 **분회 및 병원소식**
- 23 **지역의사회 탐방**
영주시의사회 / 청도군의사회 / 울릉군의사회
- 30 **회원문예**
수필_조선 왕조 이야기 · 서경진
mania를 찾아서_정가(正歌) - 가곡(歌曲)에 대하여 · 김종호
- 34 **의료봉사기**
울진군의사회 몽골 단기 의료봉사 일지 · 이종규
- 37 **회원작품**
사진_설악산 鳳頂庵 - 百潭寺 하산길 龍牙長城 한컷 · 장태영
- 38 **의학 및 건강칼럼**
가을철에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 · 방종효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1. 4. 7	제39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1. 10. 31	제43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1. 4. 24	제6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11. 11. 6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2011. 4. 25	제41회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1. 11. 12~13	전국 시도의회사회장협의회
2011. 5.	2011년도 회원정기신고	2011.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1. 5. 15	대구 · 경북 권역별 종합학술대회	2012. 1.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2011. 5. 22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계룡산)	2012. 1.	제44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1. 5. 28~29	제33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12. 3. 3	2011년도 전체이사회
2011. 7. 6	제42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2. 3.	2011년도 회무감사
2011. 10. 15~16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2. 3.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

인류를 위한 의술에서 미래세대를 먹여 살릴 의료산업까지...



깊어가는 가을 속에 43호 경북의사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경북도민의 건강한 삶과 인간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숭고한 의술을 펼치고 계신 경북의사회 회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의료인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인 경북의사회보 발간에 힘쓰신 이석균 경상북도 의사회장님과 김재왕 편집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의료인 중에는 평생에 걸쳐 남을 돕는 일에 매진하며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간 의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사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보통 사람으로서 따라하기 힘든 감동의 삶을 산 장기려 선생님이나, 얼마 전 ‘수단의 슈바이처’로 존경받은 이태석 신부님 등 모두가 의술을 통해 인류 공영의 가치인 휴머니즘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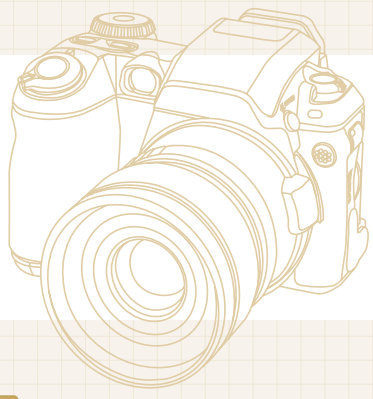
경북의사회 회원 한분 한분도 학창시절 지나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습득한 숭고한 의술을 사회에 나와 보람 있게 펼쳐나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역내 불우 시설 방문, 국내 취약지역 무료 진료, 재난 재해 의료봉사

활동 등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회원분들의 노력에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시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따라 영남지역은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 거점 도시로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류공영을 위한 의술이 이제는 미래 세대를 먹여 살릴 성장동력으로 또 한번 기여할 기회입니다. 부디 우리 경북의사회가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 냄으로써, 대한민국 의료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의료계 발전에 계속 앞장서 주시고, 계절이 바뀔 때 쯤 출간되는 회보를 구심점으로 평소 못 다한 우정과 친목을 돈독히 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북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가족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의원
경북도당위원장 **최 경 환**



사진으로 다시보는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1. 전북 무주에 도착하여 환영의 꽃다발을 받고
2. 방인석 전북회장의 환영사
3. 이석균 경북회장의 답사
4. 경만호 의협회장의 축사



Photo News



- 5. 다함께 막걸리잔을 기울이며
- 6. 흥겨운 국악과 함께
- 7. 덕유산 향적봉을 오르며
- 8. 양도 의사회 기념품 전달
- 9. 아쉬운 작별의 시간





경북·전북 친선행사서 화합과 우의 다져

금년도 친선행사는
전라북도의사회 초청으로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의 장으로 열렸다.



본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2011년 10월 15일(토)부터 16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일원에서 제26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의사회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이날 친선행사에는 본회에서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 신은식·최종두·이원기·변영우 고문,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등 35명이, 전라북도의사회서는 방인석 회장과 양형식 대의원회 의장, 김병주·장명규·천희두·김학경 명예회장 등 46명과 의협 경만호 협회장, 김남호 인천시의사회장, 권해영 경상남도의사회장 등 양도의사회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방인석 전라북도의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친선 행사를 위해 멀리서 한걸음에 달려오신 경상북도의사회 회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동서화합과 영호남 갈등극복을 위한 경·전북간의 자매결연 행사는 의사회를 넘어 다른 사회단체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본회 이석균 회장은 “두 의사회가 26년째 서로 맺은 우정을 잘 가꿔가고 있다”며 “두 의사회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며 더욱 합심하고 친숙한 형제애를 만들자”고 화답했다.

‘덕이 많아 넉넉한 산, 너그러운 산’ 으로 불리고 있는 덕유산 향적봉(1,614m) 오르며 오색빛깔로 물든 가을의 단풍을 감상하는 관광으로 이루어졌다.



이어 의협 경만호 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최근 의료현안인 선택의원제와 2012년 수가협상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만찬과 더불어 전라북도의사회에서 마련한 국악과 대금 공연으로 분위기를 한층 높였으며, 2부 친선행사는 향아리식당에서 양지역의사회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튿날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영호남을 가리는 우리나라 12대 명산과 더불어 ‘덕이 많아 넉넉한 산, 너그러운 산’ 으로 불리고 있는 덕유산 향적봉(1,614m) 오르며 오색빛깔로 물든 가을의 단풍을 감상하는 관광으로 이루어졌으며, 친선골프대회는 무주안성CC에서 개최되는 등 알차게 꾸며졌다.



금년도 친선행사는 전라북도의사회 초청으로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의 장으로 열렸으며, 기념품 전달과 환송사를 끝으로 2011년도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경북지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는 88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1987년 당시 김병주 전북회장과 오삼달 경북회장이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상호 격년제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안동 성좌원 '한센인에 의료봉사'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2월 한센인 의료봉사를 실시한 이후 전국 89곳의 한센인 정착촌에 순회 의료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센인에게 인술을 베풀고 동시에 잘못된 사회인식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번 제5차 한센인 의료봉사는 지난 8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안동성좌원 입소자 및 인근 정착촌 거주 한센인을 대상으로 의협 사회협력단(단장 조인성)의 주관으로 제5차 한센인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빛복지협회 주최로 본회와 안동시의사회,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원, 대한간호협회, 전국의대의전원학생연합이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의사 9명, 간호사 8명, 자원봉사 및 행정지원 32명이 내과, 정신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안과의 전문 진료로 294명에게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이날 한센인 의료봉사는 안동성소병원에서 검진차량을, 안동성좌원에서 물리치료를 제공하였으며, 본회 회원으로는 안과에 최유근 회원(최유근안과의원), 이재환 회원(안동병원 재활의학과)이 의료봉사에 동참했다.

또한 안동의료원에서 간호사 4명을, 안동병원에서 간호사 3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안동성소병원에서 방사선사 1명을 지원하여 의료봉사에 참여하였다. 안동시의사회에서는 김광인 회장을 비롯한 문상용 기획이사, 양승홍 재무이사가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본회, 전북 정읍의사회에 수해성금 전달



지난 여름 전북 정읍지역에 국지성 호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회 제29차 상임이사회(8/20)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의사회를 통해 수해성금 200만원을 전달키로 결하였다.

이에 전북의사회(회장 방인석)와 정읍시의사회(회장 임철수)는 지난 8월 31일 정읍시청(시장 김생기)을 방문하여 본회에서 마련한 수해성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수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위로의 뜻을 전했다.

본회 고문단 · 중앙대의원 간담회 개최



최근 주요 의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선택의원제와 의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일(수) 오후 7시 30분 호텔인터불고 동보성에서 본회 고문단 및 중앙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 고문단과 중앙대의원,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균 회장과 정만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바, 고견을 주실것을 당부드린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이석균 회장은 최근 의료현안으로 선택의원제를 비롯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과, 의협 집행부와 전의총과의 관계 등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으며, 참석한 고문단 및 중앙대의원들은 현재의 의료계 상황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내부 불신을 모두 잠재우고 의료현안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의료인의 중추적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위해 전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일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줄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선거인단 투표)'로 판결

대법원은 지난 10월 27일(목) 의협 대의원회 결의 무효화 인 소송과 관련한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2009. 4. 26)에서의 간선제 결의가 유효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측이 지난 2009년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간선제 개정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통과돼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선권모가 제기한 소송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간선제 개정안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또한 최종심인 대법원은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간선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의협 회장 선거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012년 치러질 예정인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 서면결의 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을 마무리한 후 선거에 대비키로 한 바 있다.

경북행복재단 출범



비영리 보건복지정책 전문연구기관인 경북행복재단(이사장 김영일, 대표이사 윤정용)이 지난 7월 14일(목) 오전 11시 30분 출범했다.

이날 오전 구미시 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 출범식을 가진 재단은 앞으로 경북도민의 복지체감지수를 높일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지원사업과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본회 이석균 회장, 남유진 구미시장, 사회복지보건의 분야 CEO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출범식에 앞서 '21세기 한국사회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의 특강과 더불어 재단 설립 추진 경과와 마스터플랜을 담은 동영상도 상영됐다.

심평원대구지원과 의료현안논의



본회와 심사평가원 대구지원은 지난 10월 11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

아트리움에서 신임 지원장과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명준 보험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업무중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양 단체 간의 좋은 유대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황의동 대구지원장은 "갈등이나 마찰이 많은 것은 상호 이해관계와 소통부재로 인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심평원도 오픈된 마인드로 충분히 자료를 공유하고 자주 만나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요양기관 현황 및 심사실적 보고와 더불어 2011년 선별집중심사와 기획현지도사, 의료장비 전산점검, 주요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지난 6월 29일부터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청구 포털서비스의 가입신청절차와 사용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 등 자료전송편리성의 극대화로 많은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문제되는 주요 민원 항목 등 심사평가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경북 자원봉사센터와 MOU체결



본회와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

하여 나눔과 섬김의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10월 14일(금) 대구그랜드 호텔에서 '경상북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MOU(양해각서)' 를 체결했다.

이날 MOU체결에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김도현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로 등록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제공 △자원봉사 기초교육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등 협력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5가지 항에 대해 양측대표가 서명하고 한 MOU를 체결했다. 또한 협약식과 더불어 개최된 '경상북도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위크숍'에서는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소개와 더불어 자원봉사 업무협약단체 활동사례 발표, 2012년 공동사업협의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현재 경상북도 자원봉사 업무협약은 4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조수호 병원장 제6대 구미차병원장으로 연임



학교법인 성광학원은 지난 8월 29일 병원 강당에서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6대 병원장에 현 조수호 병원장을 연임하여 취임식을 가졌다.

조수호병원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의학박사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영남대학교병원 병원장,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대한뇌정위기능 신경외과학회 회장, 구미차병원 4대 5대 병원장을 역임하였다.

조수호 병원장은 "지역민과 함께하고, 환자 입장에서 진료하고, 지역의료 선도에 박차를 가하여 경북지역의 최고의 대학병원을 넘어, 영남의 으뜸병원으로 가는 길을 교직원과 함께 하겠다"는 취임소감을 밝혔다.

조수호 병원장은 "지역민과 함께하고, 환자 입장에서 진료하고, 지역의료 선도에 박차를 가하여 경북지역의 최고의 대학병원을 넘어, 영남의 으뜸병원으로 가는 길을 교직원과 함께 하겠다"는 취임소감을 밝혔다.



선린병원 공규민 정형외과 과장 골절치료 새 치료법 고안



선린병원 정형외과 공규민 과장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정형외과외상학회(SICOT)에서 청소년기 환자의 아래팔 골절 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청소년기 환자의 아래팔 척골과 요골의 복합 골절로 인한 치료 방법은

성인 치료법과 동일하게 금속판으로 척골과 요골을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 과장은 척골과 요골의 고정 방법을 변화시켜 척골은 금속판 고정술을, 요골은 골수강 내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수년 동안 12~17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를 분석한 결과 척골 골절에 대해서는 금속판 고정술을, 요골 골절에 대해서는 골수강 내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안정적인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 치료법에 대해 대한정형외과학회로부터도 인정을 받아 공 과장의 연구에 대해 장학금이 지원됐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본회 회무 및 지역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기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핵의심환자 신고 협조

■ 감염병 중 환자 및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결핵에 대하여 최근 관리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시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국가검진 및 민간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시에도 결핵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2조 및 제81조에 따라 감염병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관련문의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결핵 관리과 조승희(02-6929-3266)

의협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이용

■ 의협에서는 대화원 법률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회원들이 진료업무를 비롯한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에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법률상담실에 제반 법적문제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협 자문변호사의 전문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용방법 :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접속→게시판→법률상담실→필요한 법률자문 내용을 작성(공개/비공개)→정확한 상담을 위해 연락처 기재

자율적인 약품비 절감 협조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를 절감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저평가된 의료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위호와 같이 「의약품특별대책위원회」와 「보험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진행한 결과 약가 인하와 약가결정 체계 합리화 등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아울러 처방일수, 처방품목수를 의사가 자율적으로 줄여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였음.

의료인(간호사) 최선의 진료 행위 위반 여부 복지부 인터넷 민원 회신

■ 현행 의료법 제15조(최선의 진료)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기관에서 퇴근시간 무렵 등 대기환자가 많을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고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전원을 권유한 경우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따라 복지부에 인터넷 민원을 요청에 대한 회신을 안내

■ 인터넷 민원회신 내용 : 의료기관을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접수단계에서 예약 환자현황 또는 예상대기시간을 알려주어 환자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 등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진료 거부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HIV보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협조

■ 보건복지부는 최근 특정 의료기관에서 HIV 보유자에 대한 수술거부, 전원초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HIV 감염인에게 제공하는 의로서비스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받았음.

■ 이에 HIV 환자 진료에 필요한 장갑, 마스크 등 제반 재료 확보를 통해 HIV 보유자가 진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안내

■ 의료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협조

■ 보건복지부는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의 일부가 국내에서 브로커와 공모하여 자신들의 자녀를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등재한 후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 신생아 출생증명서 발급 시 분만자의

신원확인 철저

- 출생증명서 발급 시 각별한 주의 요망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 관련 안내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에 의해 반드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환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도 2단계 요양급여를 직접 방문한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의뢰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안내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시행 근절 협조

■ 최근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하여 예방접종은 보건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예방접종의 주관 대상을 분명히 한 바 있음.

■ 동 고시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보건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이 예방접종을 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는 관할보건소 신고하에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등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남아 있어, 이로 인해 일부단체가 박리다매를 목적으로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을 남발할 우려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협은 이러한 제도상의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행위 사례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취합된 사례를 정리·분석하여 보건복지부에 무분별한 불법단체예방접종행위 근절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임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전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되어 전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장애판정기준을 안내

■ 주요내용 :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

예방접종 실시 기준 안내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1년 현재 DTap-IPV 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되었고, 2011년 제2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2011. 5. 30)에서 Tdap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도입 권고(2012년 도입 예정) 및 일본 뇌염 백신 접종 실시 기준 심의·변경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안내
※ DTap-IPV 백신의 경우,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서의 접종비용 지원 시기는 관련 고시 개정 후 비용 지원 예정임(10월)

노인복지관 불법물리치료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된 노인복지관은 물리치료를 두도록 하고,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 장비는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촉탁의를 두지 않고 있는 일부 노인복지관 근무 물리치료사가 인근 의료기관에 소위 '물리치료처방의뢰서' 발급을 요청토록 하고, 노인환자가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온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없이 독립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의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존 모호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바로잡은 내용을 안내하였음.

■ 주요 화신내용

1) '의사가 의료기사를 지도하고 있다' 함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하나의 시설내에서 근무하고 있을때로 봄이 타당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 일부 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사가 동 시설의 방문 노인으로 하여금 인근 의료기관에 소위 '물리치료처방의뢰서' 발급을 요청토록 하고, 노인환자가 '물리치료처방의뢰서'를 받아온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없이(촉탁의도 없음) 독립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불법

환자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환자의 질병, 병력, 진료경과 및 예견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에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법 제2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조항을 근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에 관한 열람·사본발급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2호 및 제8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198조 등 의료법 제21조에 열거되지 않은 법규정에 따른 환자의 기록에 관한 열람 및 사본발급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1년도

의사회비 납부요청 및 신용카드결제 안내



회원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권 신장과 더불어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의사의 중추단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은 물론 단합된 회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단체의 존재성을 다시한번 되새겨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회 홈페이지의 회비납부를 통하여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로도 납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 ●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도내거주회원)

● ● 입금계좌

■ 농협 301-0012-0507-61 경북의사회

● ●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회비면제 회원

- 1) 만70세이상 회원(1941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단, 경상북도 의사회비는 '가회원' 250,000원, '나회원' 125,000원 납부
 - 2)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3)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4)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5)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 회비감면 회원

- 1) 개원회원('가' 회원) 중 '나' 회원회비 적용대상 : 471,000원 징수
- 만65세이상 회원 : 1941년 5월 1일 ~ 1946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 ● 회원 변동 신고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접속 →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변경내용 수정

● ● 신용카드 결제

■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 접속 → 회비납부(화면 좌측 박스) 클릭 → 해당금액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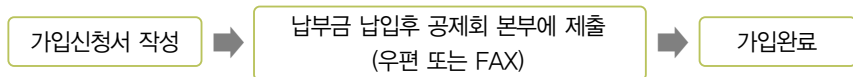
회비 내역	가회원		나회원	다회원	라회원	휴직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00,000	221,000	221,000	125,000	96,000	12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 회비·학술대회분담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	
계	550,000	471,000	346,000	200,000	96,000	125,000	

제31기

대한의사협회 기존공제회 가입안내

가입절차 및 납부방법

- 가입접수 기간 : 2011. 10. 1 ~ 10. 31(1차) / 11. 1 ~ 11. 15(2차)
- 가입효력(1년) : 2011. 11. 1 ~ 2012. 10. 31까지
- 가입절차 및 납부방법



• 납부방법 : 계좌(은행) SC제일은행 327-10-016923 [예금주: 사)대한의사협회]
 ※ 반드시 가입회원명(면허번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문의 및 사건상담

- 공제회 본부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관할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 02) 794-2480, 6587, 2474 (ARS 9)
 FAX 02) 792-1361, 795-1346
- 대구·경북(주재사무소) ☎ 053) 941-7102

제31기 기존공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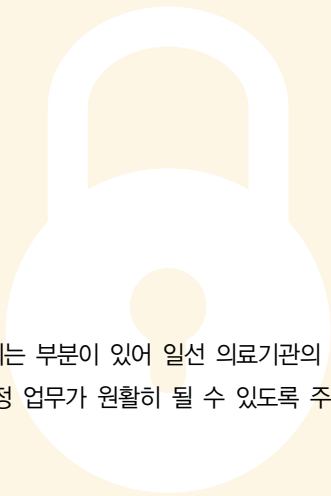
- 보상한도액 : 최대 1천만원
- 상부상조 부조성 보장 (배상공제와 별개상품)
- 실제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5개 종별 가입체제 : 「가입종별 및 납부금표」 참조
- 사건처리 절차 : 사건발생/접수 ⇨ 상담/조사/처리(합의중재) ⇨ 합의 ⇨ 심사/보상

가입종별 및 납부금표

종별	준 용 과 목	진료영역 또는 범위	납부금
1종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주사행위는 2종가입)	70,000
2종	내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 기본(외래)진료에 해당하는 것(주로 단순한 일반진료 영역) • 통상적인 주사, 투약의 진료영역 * 1종 진료영역 포함	170,000
3종	외과계열 · 정형외과, 신경외과 · 외과, 성형외과 등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비뇨기과	• 외과계의 처치/수술 등의 진료(관절강내 국소주사 포함) • 마취시술에 의한 진료(경막외차단술, TPI 등 통증클리닉 치료 포함) • 성형외과 처치/수술(단, 주관적 불만족 사항 제외) • 정신과 입원진료 • 안과 처치/수술(백내장/녹내장/엑시머레이저/라식수술 등) • 피부과 처치/수술(레이저, IPL, 박피수술 등) * 1, 2종 진료영역 포함	420,000
특종A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처치/수술(13주이하 중절술 포함) * 1, 2, 3종 진료영역 포함	750,000
특종B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처치/수술(14주이상 24주이하 중절술 포함) * 1, 2, 3종, 특종A 진료영역 포함	1,300,000

※ 준용과목과 관계없이 실제 진료하는 진료영역으로 가입종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2011. 9. 30)있습니다. 법적용에 현 의료법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전에 행정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정의

■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직·간접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 직접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예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운전면허번호, 이동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 간접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예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회적 지위나 직책,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정보 (예 : 신용평가 정보, 환자정보, 진료정보 등)]

■ 개인정보라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상의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되므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통계 등의 목적으로 변화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제거된 상태의 정보

■ 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하며, 수집·생성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주체라고 함.

병·의원 주의사항

■ 정보주체가 진료목적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 함.

-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우선하므로 관련법에서 허용 또는 의무적용 되는 정보 수집 및 이용 부분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예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에 환자 또는 진료 받은 자의 직접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간접정보(증상, 진



단결과, 진료결과, 치료내용 등)는 의무 기재사항이므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는 의료관련 법에 의무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자와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즉, 진료목적에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수집하고 진료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은 가능함. 단, 진료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기관의 홍보 등에 연락처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동 내용은 행안부 및 복지부 질의관련 회신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자정보 수집·이용시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동의서가 필요할 수도 있음. 즉, 병·의원 홍보나 환자 교육 등 진료 외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급적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음.

■ 진료목적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시에는 정보주체(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동의서를 받을 때는 아래 사항을 정보주체(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에는 정보주체 동의를 아래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정보주체가 진료로 인해 생성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경우

• '의료법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가 우선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진료에 관한 기록에 기재항목으로 규정되어 있

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삭제 및 파기를 할 수 없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환자명부(5년)', '진료기록부(10년)', '처방전(2년)', '수술기록(10년)', '진단서 등의 부분(3년)' 등을 보존토록 되어 있음.

• 환자가 삭제를 요구하는 정보가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나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삭제를 하기 전에 결정이나 판단을 내린 의료인에게 의견을 구해야 하며, 삭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개진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것임.

■ 병·의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일 경우

• 정보주체(내원객)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설치 목적 및 장소
- ② 촬영 범위 및 시간
- ③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함.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은 아니 됨. 단,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은 예외 임.



의료폐기물 배출자 사이버 연수교육 수강 안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구축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2011년도 의료폐기물 교육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11년 의료폐기물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실시사항을 안내하오니 대상 회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명 및 대상자

- 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대상자 : 1)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병·의원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담당자로 지정된 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교육 사이트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kma.org>)

■ 교육일정

- 수강기간 : 9월 1일 ~ 11월 30일
- 수료확인 : 수강기간내에 4차시 과정 수강완료 ⇒ e-test 응시 ⇒ 수료확인 및 수료증발급

■ 교육수수료 : 대한의사협회 부담

■ 수강절차

※ 학습간 유의사항

- 수강기간내에 4차시 100% 이상 필히 수강하여야 정상적인 수료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차시별로 배정된 "학습시간" 이상 수강해야 함)
- 수강기간내에 수료완료 되지 않을 경우 미수로 처리됩니다.
- 의료폐기물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연수평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 1) KMA 교육센터 접속(<http://edu.kma.org>) ⇒ 회원가입 신청
- 2) 회원정보 입력
- ※ 의료폐기물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의사회원이나 의료기관 직원 모두 [회원분류]에서 '일반'을 선택하고 [회원구분]에서 '의료폐기물교육'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KMA 교육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의사회원들도 '의료폐기물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회원분류]에서 '일반'으로 선택하고 [회원구분]에서는 '의료폐기물교육'을 선택하여 별

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 정확한 수료증 발급을 위해 '소속 의료기관주소', '직장명(의료기관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직장명에 해당 의료기관명을 명시해야 수료증이 올바르게 발급됩니다.)

● 수 강

1) 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그인



- 2) 연수교육 ⇒ 사이버연수교육 메뉴 클릭
- 3)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과정명 클릭
- 4) 수강하기 버튼 클릭
- 5) 교육신청 완료 ⇒ '학습페이지 이동' 버튼 클릭
- 6) 마이페이지 ⇒ 사이버연수교육 학습내역 메뉴 클릭
- 7)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과정명 클릭
- 8) 학습하기 버튼 클릭
- 9) 4차시 과정 수강

※ 학습목차

차시	목차명
1차시	폐기물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
2차시	의료폐기물 관리실무
3차시	올바로 시스템 소개
4차시	RFID 의료폐기물 시스템 소개

● 수료확인 및 수료증 발급

- 1) 수강기간내에 4차시 과정 수강완료 ⇒ e-test 응시
- 2) 수료확인 및 수료증 발급
- ※ 수료증은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 ⇒ 이수확인서 발급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국토대장정 대학생에게 무료진료 및 약품 지원



포항시의사회(회장 황석순)는 "2011 대한민국 청년희망 국토대장정" 10개 루트중 포항 호미곶에서 지난 7월 12일(화) 오전 6시에 출발한 국토대장정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오후 5시 30분부터 도구해수욕장에서 무료진료와 약품을 전달했다. 이날 무료진료 의료지원팀은 황석순 회장을 비롯한 박진현(신명준외과의원) 회원과 간호사 3명, 행정직원 2명이 참가하였으며, 약품은 감기약 등 17종(135통)을 포항시의사회와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성모병원이 지원했다.

회원 및 가족 아우회 겸 등반대회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제9회 회원 및 가족 아우회 겸 등

반대회가 지난 9월 25일(일) 오전 9시부터 포항시 송라면 내연산 보경사 일원에서 회원 18명과 가족 11명, 직원 2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주시의사회

제8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이봉구)는 지난 9월 4일(일) 경주 신라CC 천마코스에서 제8회 친선체육대회의 일환으로 회원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개원회원과 동국대경주병원 교수 등 총 24명이 참여하여 천마 in/out코스 각 3팀으로 나누어 개최되었으며, 우승은 김철용 회원(경주정형외과의원), 준우승은 이정호 교수(동국대병원 내과)가 차지하는 등 메달리스트·롱기스트·니어리스트·행운상·버디버디상·보기상·파상·대파상·소파상 등 각 부문의 사상이 있었다.

안동시의사회

제1회 친선볼링대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광인)는 지난 10월 27일(목) 오후 7시, 예술의전당 볼링장에서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볼링대회를 개최했다. 각 반 및 병원별 예선 후 상위 4개팀이 결승전을 벌인 결과 중



합우승팀에는 안동성소병원, 개인우승은 심상준 회원(안동성소병원), 행운상에는 김기태 회원(김기태가정의학과의원)이 차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구미시의사회

전체이사회 겸 박재호 고문 산수연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류성훈)는 지난 지난 8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전원일기식당에서 고문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이사회 겸 박재호 고문(대산외과의원)의 산수연(팔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이사회서는 최근 의료현안 설명과 하반기 주요 행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어 의사회 회무에 많은 기여를 하신 박재호 고문의 산수연을 맞아 류성훈 회장의 사회로 주요약력 소개와 선물증정, 견배제의, 케익컷팅의 순으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여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및 의약단체 간담회



건보공단 구미지사와 의약단체와의 간담회가 지난 9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구미시의사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류성훈 회장의 인사와 더불어 건보공단에서 준비한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건보재정현황 설명과 보험급여기준 일부 변경, 대형병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장류요류 장애인 치료재료대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전반기 정기총회 개최



지난 9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신타페 레스토랑에서 류성훈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 가운데 전반기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류성훈 회장의 인사에 이어 민명기 기획이사로부터 2011년 전반기 각종 회무보고와 회비납부 현황보고 및 당부, 전반기 성금지원 보고에 이어 토의사항으로 최근 의료현안과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시행근절에 관한 협조 요청,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일정과 장소관련 등 의견을 개진했다.

영천시 의사회

가을 정기 친선골프대회 개최

영천시의회(회장 이동길)는 지난 9월 18일(일) 경산 인터볼고CC에서 가을 정기 친선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친선골프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 및 신규회원간의 소통과 더불어 진로실을 벗어나 시원한 자연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경산시의사회

공단과 반부패 청렴실천협약체결



경산시의사회(회장 박일영)는 지난 9월 9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와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반부패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이웃사랑 나눔 물품전달



한가위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9일(금) 박일영 회장과 김중영 부회장, 채한수 재무이사, 이석균 경북의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락원을 방문하여 이웃사랑 나눔의 실천으로 생활필수품 전달 및 원생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 및 가족야유회 개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10월 23일(일) 초례봉에서 경산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야유회는 박일영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4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포항성모병원

청소년 장학금 마련 행사 개최 및 장학금 전달



포항성모병원(의무원장 김용필)은 지난 8월 5일(금) 본관 1층 로비에서 청소년 장학금 마련 더위사냥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포항성모병원 간호부 주최로 직원들이 직접 만든 시원한 팔빙수와 아이스티 등을 병원에 내원한 고객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여 판매수익금 전부를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니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학원비 지원을 해주고자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9월 19일 지역아동센터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평소에 하고 싶은 운동이나 공부가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배우지 못하는 아동들 중 지역아동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태권도와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1년간 총 320만원이 지원된다.

'하트플러스 캠페인' 실시

국제개발 NGO 굿피플과 손잡고 저소득층을 위해 심장 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하트플러스 캠페인'을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실시한다.

하트 플러스 캠페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만성 심혈관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건강함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관질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망설이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심장질환 건강강좌와 심장질환 예방 캠페인 등을 함께 실시하여 지역민들에게 심혈관질환에 대해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위덕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체결 조인식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이경섭)은 위덕대학교 간호학과와 지난 7월 8일(금) 병원 8층 화상정보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체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인식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위덕대학교간의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해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며, 양기관의 경쟁력 제고 및 인재개발 전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공동 활용과 인력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 내용은 ▲상호간의 산·학연계 체제 확립 ▲경주동국대학교병원 인사의 대학 교육 참여 ▲상호 시설/기자재(실습실) 개방 및 활용 ▲교수 및 학생의 현장 연수 기회 제공 ▲학술정보 및 간행물

교환 ▲교과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상호간의 학술강연 및 워크숍 개최 ▲우수 인력의 취업 연계 강화 등이며 양기관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인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10월 21일(금) 오후 5시, 병원 1층 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동국대경주캠퍼스 김영중 총장, 태석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영길 부의료원장, 채석래 전략경영실장, 이경섭 경주병원장, 김경호 경주한방병원장, 최진식 경주행정처장, 임현술 의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전직 병원장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심혈관중재시술 인증기관 획득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연구회 심사결과, 심혈관중재시술 인증기관 및 인증으로 인정받았다.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은 심혈관질환의 중재 시술에서 전문적인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환자의 건강과 안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재시술 의료인의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5월부터 2개월간 신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중재시술 인증제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80개 병원 292명을 인증으로 채택했다.

인증기관으로는 동국대경주병원을 포함하여 경북지역에서는 네곳만이 인증되었으며 심장혈관내과 나득영교수와 배준호 교수가 중재시술 인증의를 획득했다.

안동병원

인터벤션 영상의학회 학술대회 개최



안동병원(병원장 김용주)은 제1회 삼남 인터벤션 영상의학회 학술대회를 지난 7월 9일(토) 안동병원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학술대회는 인터벤션 의료 전문가 100여명이 전국에서 참석해 주제별 학술발표와 증례토의 등 6시간동안 진행됐으며, 학술발표는 이도연 교수(연세대,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장), 권동일 교수(울산대), 원재환 교수(아주대), 조영권 교수(울지대)가 발표하고 심형진 교수(중앙대), 조성범 교수(고려대)가 좌장을 맡았다.

증례토의는 김재규 교수(전남대), 신병석 교수(충남대), 박병호 교수(동아대), 한영민 교수(전북대)가 섹션별로 사례발표를 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스리랑카 의료봉사 활동 펼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오천환)은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스리랑카 사회복지시설과 빈민가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어 의료봉사 뿐만 아니라 시설개보수 및 구호품 등도 전달했다.

또한 순천향병원 해외의료봉사팀은 의료 봉사 기간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지원 하는 한·스문화복지재단 보육시설과 시각장애인 시설이 있는 마타라 지역을 찾아 총 1200여명의 장애인과 현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봤다.

이번 의료봉사는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 진오스님)에서 순천향병원이 매달 진행하는 외국인 무료진료를 인연으로 실시했으며, 9명의 의료진과 10여명의 일반 봉사단원들이 현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최첨단 인큐베이터 도입으로 쾌적한 의료환경 마련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최근, 최첨단 인큐베이터(모델 C2000 DRAGER) 5대를 도입, 초극소미숙아와 극소저출생체중 아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지역에 몇 안되는 신생아 세부전문인인 박일성 교수가 이끄는 순천향병원 신생아집중치료팀은 3차병원에서도 생존율이 낮은 25주미만인 극소미숙아 뿐만 아니라 출생체중이 700g미만인 초극소 저체중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로 생존율을 높여 좋은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

'응급체외순환기' 장비 도입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최근 심장쇼크 환자나 심장 및 폐기능을 상실한 환자에게 효과적 치료가 가능한 응급체외순환기(Emergency Bypass System)를 도입하고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TERUMO사 제품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이 장비는 심장의 쇼크나 심장기능 상실, 폐기능 이상의 경우 체내 산소 포화도를 유지시켜 응급상황 때 빠른 시간 안에 환자의 활력징후인 맥박혈압·호흡 유지 및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응급의료센터 증축 개소식거행



구미차병원은 지난 9월 14일(수) 지역 및 주한미군 응급의료관계자 5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센터 증축 개소식을 갖고,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고품격 시설과 최신 의료장비로 본격적인 응급환자 진료에 나섰다. 이번 증축된 규모는 기존의 446㎡(135평) 응급실을 589㎡(178평)로, 약 32%인 143㎡(43평)를 넓혀 여유 있는 공간에, 병상 증설 없이 환자 진료와 가족대기 편의시설 위주로 깨끗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창출하였다.

환자 진료를 위하여 응급환자 소생실 및 응급 처치실, 응급전염환자를 위한 격리실, 응급 경환자와 중환자, 소아, 산부인과 환자의 분리를 위한 제1응급실과 제2응급실로 구분 설치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좁았던 보호자 대기실도 넓게 구분 설치하여, 환자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그나마 편안한 기다림을 배려하였다.

개원의를 위한 "심혈관 연수 강좌" 개최

지난 8월 24일(수) 병원 7층 강당에서 개원의와 전문의, 봉직의를 위한 허혈성 심질환과 임상현장에서의 심장질환의 치료



를 주재한 심혈관 연수 강좌를 개최했다. 구미차병원 심혈관센터 개소 2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의 개원의와 전문의 및 봉직의에게 심혈관계 최신 치료기법과 의료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번 연수는 1부와 2부로 진행되어 참석자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선배와 함께 만드는 새내기 간호사 격려의 장 마련



입사 후 100일 이상 맞이한 간호사들을 위하여 지난 7월 7일(목) 7층 강당에서 깜짝 파티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장, 진료부장, 수련부장, CS담당 등 참석하여 다양한 음식과 함께 간호사 선배들의 대화의 장을 만들어, 축하와 당부의 글을 받아든 신규간호사들의 표정에는 감동과 기쁨이 넘쳐났다. 이번 행사는 선배들의 따뜻한 환영과 격려를 통해 신규간호사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간호사들이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선배 간호사 간에 애정과 신뢰를 쌓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적응력, 팀워크도 크게 향상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규간호사들에 대한 작은 배려로 환자를 감동시키는 간호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의사회 탐방

영.주.시.의.사.회

영주시의사회는

1995년 1월 1일 영주시 일원과
영풍군 일원을 관할로 도농복합형태의
영주시가 설치되면서 영풍군의사회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주시 소개

경상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영주시는 해발 약 200m로 남
북이 길고 동서로는 협소하며, 소백산맥이 서남쪽으로 뻗어
주봉인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연화봉(1,394m)과
죽령을 경계로 하여 도솔봉(1,315m)으로 이어진 소백산 산록
고원부지에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봉화군,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남쪽으로는 안동시와 예천군, 북쪽으로는
강원도 영월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소·태백권 교통의 중심
도시이다.

봉황산과 북부 산악지대에서 발원한 내성천은 봉화군을 관
류하여 문수면 수도리에 이르고,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연화
봉과 죽령계곡에서 발원한 남원천과, 국망봉에서 발원한 죽계
천이 고현동에서 합류되어 서천을 이루어 시가지를 감돌아 낙
동강으로 유입되며, 토질은 대부분이 사질양토로 각종 농산물
이 잘 자라며, 특히 북부 산악지대는 사양토이기 때문에 배수
가 잘되어 인삼, 사과 등의 생육에 적절한 곳이다.

선비문화축제, 소백산철쭉제, 단산포도축제, 무섬외나무다
리축제, 풍기인삼축제, 부석사화엄축제 등의 축제와 다양한 문
화 행사로 영주를 외부에 알리고 있다.

영주시의 역사를 보면 1914년 4월 1일 영천군(榮川郡), 풍기



영주시의사회 역대 회장

- 초대 정준모
- 2대 김치순
- 3대 주세정
- 4대 이영걸
- 5대 최광택
- 6대 서진민
- 7대 최광택
- 8대 김형근
- 9대 최광택
- 10대 박시균(성누가의의원)
- 11대 김주영
- 12대 강창학(아세아가정의학과의원)
- 13대 박시균(성누가의의원)
- 14대 김형근(순창병원)
- 15대 서익제(영주기독병원)
- 16대 송원식(송외과의원)
- 17대 이정일(이정일산부인과의원)
- 18대 남수현(남내과의원)
- 19대 김교성(김내과의원)
- 20대 김형수(영주동산정형외과의원)
- 21대 조영호(조정형외과의원)
- 22대 이기훈(이기훈정형외과의원)
- 23대 이재석(서울산부인과의원)
- 24대 이찬응(이찬응산부인과의원)
- 25대 허찬욱(허찬욱이비인후과의원)
- 26대 최경렬(최내과의원)
- 27대 구분환(구분환내과의원)

군, 순흥군을 영주군(榮州郡)으로 통폐합하였으며, 1923년 상리면, 하리면을 예천군에 편입하였다. 또한 1940년 11월 1일 영주면을 영주읍으로 승격하였고, 1973년 7월 1일 풍기면을 풍기읍으로 승격(2읍 9면) 하였다. 1980년 4월 1일 영주읍을 영주시로 승격하고, 영주군을 영풍군으로 개칭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영주시와 영풍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영주시가 되었다.

의료기관 현황

현재 영주시에는 병원 3개, 요양병원 2개, 정신병원 1개, 한방병원 1개 및 의원 56개가 개설되어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의사회 활동 및 주요 사업

영주시의사회는 1995년 1월 1일 영주시 일원과 영풍군 일원을 관할로 도농 복합형태의 영주시가 설치되면서 영풍군의회와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사회는 주요사안이 있을 때 마다 모임을 개최, 의료현안 협의 및 정보 공유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 하고, 전문가의 재테크 강의, 골프강좌 등을 통하여 의사회 모임의 주제 다양화 및 실용성을 꾀하여 모임의 참석율을 높이고, 지역민과 밀착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지자체와 보건소의 외부 행사(‘한여름밤 건강 체힘 마당’ 등)에 적극 동참 하고 있으며, 정기적 골프모임을 통해 회원 상호 간 침묵 도모 및 교류를 증진하고 있다.

(정리 : 총무이사 엄동환)

임원명단

회장 구분환, 부회장 황성진, 총무이사 엄동환, 재무이사 이원기, 법제이사 구성현, 의무이사 이원욱

영주시에는 병원 3개, 요양병원 2개, 정신병원 1개, 한방병원 1개 및 의원 56개가 개설되어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영주의 관광명소

1. 부석사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5점, 보물6점, 도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0대 사찰중 하나이고, 사찰앞으로 펼쳐진 자연경관을 품안에 끌어안은 모습은 마치 부처님의 온화한 자비심처럼 모든 이의 마음을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함.



2. 소백산(희방폭포)

우리나라 열여덟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풍기읍 수철리에 소재하는 우리 민족의 영산이며 영남지방의 진산, 특히 희방폭포는 연화봉 밑 깊은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몇 천 구비를 돌아 돌아 이곳에 멈춰,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소리와 함께 웅장한 폭포를 이룸.

3. 소수서원/선비촌

조선 중종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수많은 명현거유 배출과 학문탐구의 소중한 자료들을 소장.



4. 무섬마을

아름다운 자연과 고가가 그대로 보존된 전통마을, 내성천이 마을의 3면을 감싸안고 흐르고 있으며 그 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마을.

5. 죽령 옛길

소백산 제2연화봉과 도솔봉이 이어지는 잘록한 지점에 자리한 해발 696m의 죽령, 2천년의 유구한 세월을 걸쳐 우

리나라 동남지역 교통 대동맥이었던 길.

6. 판타시온리조트

짜릿한 스피드와 스릴을 만끽하는 워터파크를 중심으로 콘도 등 숙박시설, 컨벤션 시설, 18홀 정규 골프장등을 건설 중인 휴양지.

영주의 특산물

1. 풍기 인삼

소백기슭의 풍부한 유기물과 대륙성 한랭기후와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로서 인삼이 생육하기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



2. 영주 사과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 덕택에 맛과 향이 뛰어나며 성숙기 일교차가 커서 사과의 당도가 높음.

3. 영주 한우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소백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에서 사육된 우수한 육질의 한우.

4. 풍기 인견

천연섬유라 가볍고 시원하며 몸에 붙지 않고 통풍이 잘 되며 착용시 촉감이 상쾌 함.

5. 단산 포도

포도생육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양에서 유기농업으로 재배



지역의사회 탐방

청.도.군.의사회

청도군의사회는

경상북도내에서 비록 적은 수의
의료기관으로 이루어진 의사회지만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도군 소개

청도군은 경상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경주시, 서쪽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남도 창원군, 남쪽으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북쪽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까지 2개의 광역시와 2개의 도 그리고 7개의 시군을 접하고 있다.

청도군은 동서로 가늘고 길게 뻗었고, 남북으로는 짧게 뻗어 가운데 남북을 관통하는 용각산맥을 경계로 산동과 산서로 나뉜다.

동쪽에는 태백산맥의 말단 산지로서 가지산(1,240m)·문복산(1,014m)·운문산(1,188m) 등이 솟아 있고, 서쪽에는 비슬산(1,084m)·수봉산(593m), 북쪽에는 삼성산(663m)·용각산(693m)·선의산(756m)·구룡산(675m), 남쪽에는 철마산(630m)·화악산(932m)·천왕산(619m)·묘봉산(513m) 등이 솟아 있다.

밀양강(密陽江)의 원류인 동창천(東倉川)과 청도천(淸道川)이 동쪽과 서쪽에서 흘러내려 중앙 남단부에서 합류하면서 그 유역에 산동(山東)·산서(山西)의 두 계곡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운문·금천·매전의 3개 면을 포함하는 산동지방에는 동창천 연안에 좁은 곡간(谷間)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청도천 유역의 6개 읍면을 포함하는 산서지방에는 보다 넓은 충적지



청도

윤문사 술밭길

가 전개되어 있다.

대표적인 축제로는 청도소싸움축제, 감축제 등이 있으며, 조국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손색이 없으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청도 신도마을과 더불어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난을 극복한 우리민족의 저력과 근검절약과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의사회 활동 및 주요소개

청도군의회는 1956년도에 창립하여 초대회장에는 이종식 회원이 맡아 의사회를 이끌었고, 이동욱 회장(순제의원)이 상당기간 회장에 역임하였으며, 그 이후 많은 회장들이 의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료기관 현황으로는 의원 19개, 병원 6개, 보건소와 보

건의소가 개설되어 주민들의 진료에 임하고 있다. 경상북도 내에서 비록 적은 수의 의료기관으로 이루어진 의사회지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안 해결과 더불어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에 매진하고 있으며, 친목모임과 더불어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지역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로 보건소 무료진료를 철폐하였고, 기타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불우 이웃돕기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정리 : 회장 이상헌)

◆ 임원명단 : 회장 이상헌, 총무이사 남성진

청도의 관광명소

1. 청도 소싸움 축제

청도군에서 매년 3월 경에 열리는 축제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열리는 소싸움 축제들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1999년,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의 10대 지역문화관광축제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내 황소끼리의 경기 외에도 외국 소와의 친선 경기, 로데오 경기, 초대 가수 콘서트, 디카 사진 콘테스트, 루미나리에 등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로 매년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청도군 이서면 서원천변에 개최되었으나, 2009년부터 청도소싸움경기장에 개최되었다.

2. 청도와인터널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송금리에 있는 감와인 체험장으로 1905년에 개통된 옛 경부선 열차 터널을 정비하여 2006년 3월에 개장하면서 와인터널로 명명하여 현재 와인 숙성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드라마 떼루아의 촬영장소가 진행되었던 곳이다.



3. 청도 운문댐

560년(진흥왕 21)에 창건된 것을 608년 원광국사가, 신라 말기에는 보양국사가 중건하였다. 1105년(고려 숙종 10) 원진국사가 중창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당우 일부가 불탔고, 현재 대웅보전

(보물 835)·작업전·미륵전·오백나한전·금법당·만세루·관음전·요사채 등이 있다. 경내에는 보물 제193호인 금당 앞 석등, 보물 제208호인 동호, 보물 제316호인 원응국사비, 보물 제317호인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318호인 사천왕석주, 보물 제678호인 삼층석탑, 천연기념물 제180호인 운문사의 처진 소나무가 있다.

관광코스

1. 코스1

청도IC(청도역, 버스정류장)→덕사→낙대폭포→범곡리지석묘군→청도석빙고→청도읍성→청도향교→도주관→청도동헌→농기구박물관→봉기동삼층석탑→용천사→비슬리조트(1박)→명대리뚝항나무→자계서원→옹강서원→금호서원→유호연지→테마랜드→대적사→와인터널→용암온천(1박)→매전처진소나무→동창천삼족대→선암서원→박곡석조석가여래좌상→대비사→만화정→임당리김씨고택→운문댐→운곡정사→운문사

2. 코스2

청도IC(청도역, 버스정류장)→적천사→신도새마을운동발상지마을→오누이공원→상리돌배나무(염수재)→죽바위→덕양동삼층석탑→오졸재여포비→차산농악→봉기삼층석탑→용천사→비슬리조트(1박)→명대리뚝항나무→자계서원→도주관→청도동헌→청도석빙고→범곡리지석묘군→덕사→유호연지→테마랜드→대적사→와인터널→용암온천(1박)→청동기유적지공원→매전처진소나무→동창천삼족대→선암서원→박곡석조석가여래좌상→대비사→만화정→임당리김씨고택→운문댐→운곡정사→운문사



지역의사회 탐방

울.릉.군.의.사.회

울릉군의사회의

역사는 울릉군보건소의 역사와 같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초반 의사이자 목사인 이일선원장이 도동에 개원한 것을 제외하면 개인의원을 개원한 것은 미미할 정도이다.

울릉도

울릉군의사회(의료원)의 역사

울릉군은 현재 인구 1만 명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 작은 지자체이다. 한창 번창했을 때는 거의 인구가 3만 명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독도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고, 일본이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언어도단의 주장을 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릉군의사회의 역사는 울릉군보건소의 역사와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초반 의사이자 목사인 이일선원장이 도동에 개원한 것을 제외하면 개인의원을 개원한 것은 미미할 정도이다. 몇 번 개원을 한 의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 얼마 가지 않아 문을 닫았고, 현재도 개원의사는 없는 실정이다.

울릉군보건소와 울릉군보건의료원의 역사

울릉군보건소는 1963년 2월 13일에 울릉군 울릉읍 도동에 설치되었으며, 1966년 11월에 5과 13병상의 울릉군립병원이 개원하였다. 1984년에 보건소와 군립병원이 통합되어 6과 20병상으로 개편되었으며, 1988년 보건의료원으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 당시에는 주로 무의촌 파견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진료과장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 당시 원장으로 봉직하기를 희망하는 의사들이 없어 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을 때가 많았다.

2004년 10월 10일 필자가 의료원장으로 재직 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625m²(1,097평)의 의료원 건물이 신축 완공되어 이전 개원 하였다. 이후 3층 옥상에 한 층을 더 증축하여 2009년 7월 1일 노인요양병원(42병상)도 개원하였다. 역대 보



1. 보건의료원의 옛 모습(군립병원)
2. 현 울릉군보건의료원





3. 1964년 동아일보 기사
4. 울릉도 병원입구

진소장과 군립병원 그리고 보건의료원의 역대 원장 명단을 완전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확실한 명단을 찾기 어려웠다. 최근의 의료원장 역임자로는 박화중, 김주열, 정만진, 그리고 현재의 김영현 원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치과와 한방을 포함하여 11개과가 개설되어 있고, 2개의 보건지소와 3개의 보건진료소를 두고 있으며, 진료과장과 보건지소장은 원장을 제외하고 전원 공중보건의가 맡고 있다.

울릉군의 슈바이처 이일선 원장(목사)

1961년 5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이일선 목사(의사)가 병원의 가구와 모든 비품을 정리하여 가족과 함께 울릉도로 향하였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이 때 그의 나이 37세였다. 그리고 1964년 7월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이일선 원장은 10여 평의 작은 울릉도 병원에서 하루에 50여 명의 환자를 보고 그 중 극빈환자 10명 정도는 무료로 진료해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일선 원장은 17세 때 슈바이처 전기를 읽고 그와 같은 길을 걷기 위하여 한국신학대학과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58년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에 있던 슈바이처를 찾아가 거기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봉사의 꿈을 국내에서 피우기 위하여 울릉도에 정착하여 선교와 의료봉사에 매진하였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74년에 인촌문화상을 수상 하였다.

이일선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건물이 아직도 울릉군청 옆 울릉호텔 앞에 변형된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울릉도의 여러 곳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현재도 그의 활동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50년 전에 해상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지금의 아프리카보다도 더 열악한 울릉도에 들어가 결핵과 장티푸스 등 전염성 질병 퇴치에 앞장선 그의 공로는 울릉군 의료의 시발이었다.

(정리 : 정만진 전 울릉군보건의료원장)

울릉도 관광명소

1. 성인봉

해발 986.7m 성인봉은 산의 모양이 성스럽다 하여 성인봉(聖人峰)이라 부른다. 울릉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형제봉, 미륵봉, 나리령 등 크고 작은 산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는 성인봉을 올라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인봉은 울릉도의 진산이다.



역사적 자료와 유물, 사진이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3. 약수공원

약수공원에는 탄산천으로 빈혈, 생리장애, 류머티즘 질환, 습진 등 피부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수터가 있다.

울릉도의 특산물

1. 오징어

울릉도 지역은 오징어의 주 생산지역으로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청정해역으로 둘러 쌓인 천혜의 조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타 지역보다 맛과 향이 우수하며 조직감이 양호한 건오징어 생산하고 있다.

2. 호박엿

당도가 높고 육질이 두꺼운 울릉도산 호박을 30% 첨가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었으며 치아에 달라붙지 않고 담백해서 어린이, 신세대, 노인층까지 즐겨먹는 기호식품이다.

2. 독도박물관

독도에 대한 역사와 자연환경 및 식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토박물관이다.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부르짖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선 왕조 이야기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인 <묘호>는 선왕의 업적을 평가하는 뜻이 담겨 있다. 묘호를 정하는 방식은 조선 후기의 경우 왕이 죽은 뒤 의정부 당상과 육조 참판 이상 등의 관리들이 의논해 묘호를 정해 각각 3개를 올리면,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

임금의 이름 뒤에 <조>는 공이 있는 왕을 '조'라 하고, <중>은 '덕'이 있는 왕을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군>은 재위 중 왕위에서 쫓겨난 왕을 칭한다. 또 다른 설명은 '조'는 나라를 처음 일으킨 왕이나 나라의 정통이 중단된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쓰고, '중'은 정통으로 왕위를 계승한 왕에게 붙였다고 한다. 예로 나라를 세운 공이 있는 이성계는 태조이고, 백성에게 많은 것을 남긴 덕이 많은 세종, 그리고 중도 하차 한 연산군이 있다.

묘호가 왕의 업적을 평가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서 글자의 해석으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조선의 왕 중 오래 살았다고 영조, 짧은 생을 마쳤다고 단종, 아버지에 무조건 "예"라고 답했다고 효종, 바르게 정치를 했다고 정조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문물을 정비하고 제도를 세운 왕은 성종(成宗)이다.

영조(英祖)는 한글 이름답게 오래 살았다. 83세의 장수를 누리고 52년간 조선 임금 중 가장 오랜 재위를 하였다. 참고로 우리 역사에서 오랜 재위기간의 왕을 보면 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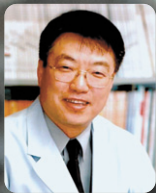
려 6대 태조왕이 97년간으로 최고이고, 그 다음이 고구려 장수왕 78년간 그리고 조선의 영조이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왕조의 시조인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기록한 총 1,893권 888책으로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인류의 기록유산>으로서 가치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국보 제 15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기술까지의 간행을 직접 하였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실록의 편찬은 다음 국왕이 즉위한 후 실록청을 개설하고 관계관을 배치하여 편찬하였으며, 사초는 군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사초는 사관들이 국가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그 잘잘못 및 인물에 대한 비평, 그리고 기밀사무 등을 직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사범이 매우 엄하여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으며, 기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왕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서경진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영상의학과

지미(집) 시팔년(18년) 동안 ㄹ(재)위 하면서
이년(연) 저년(연) 다 봤지만
저런 쌍년(연)은 처음 보는구나……!!!

국사의 회의 기록은 왕의 오른쪽에 위치한 사관은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왼쪽의 사관은 그 때의 분위기를 기록하였다. 예를 들면 우사관은 “왕께서 ‘그럼 대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기록하고, 좌사관은 “왕께서 눈을 치켜세우고 수염을 부르르 떨며, 큰소리로 말했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그야말로 “비디오 실록” 인 것이다. 이 실록은 국사뿐만 아니라 <왕의 사생활> 기록도 상세히 되어있다. 왕의 대변인 매화의 상태를 기록한 것은 기본이고, 침실에서 일어난 일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당연히 왕의 성생활도 사관은 모든 상황을 자세하고도 정확히 기록했다. 태종이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후의 일이다. 왕의 모든 말과 행동이 기록되니 측근에게 은밀히 개인적인 지시와 참모조언을 얻기 위해 태종은 사냥터를 택했다. 말을 달리며 부하 장수에게 말을 나누고 있는데, 또 다른 말이 바람처럼 옆에서 달리며 따라오는 것이었다. 사관이 따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태종은 말에서 내려 사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도 인간인데 개인적인 이야기는 사적으로 하고 싶다. 부탁한다.” “당신은 이 말도 기록할 것인가” 라고 ‘왕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다.

재위 기간 중 선정을 베푸신 세종대왕은 신록을 보고 싶어 안달을 하셨다고 한다. 자기의 아버지이신 태종 이방원에 대한 사관들의 기록이 너무도 궁금하였던 것이다. 사관들은 “전하, 아니 되웁니다.” 라고만 머리를 조아리고 왕의 부탁들 들어주지 않았다. 세종대왕은 끝까지 궁금함을 가지고 붕어하신다.

조선의 왕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 지는 것이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투명 유리 그릇에 담겨 발가벗은 채 생활을 하였다. 조선의 왕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힘든 자리인 것이다.

대왕세종

대~한민족의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성군이신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시고, 해시계 등 많은 과학적인 기구를 발명하셨다. 말년에는 사랑하는 소현황후가 죽자 신하들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월인천강지곡’ 을 지어 명복을 빌고, 궁 안에 불당을 짓고 석보상절을 간행하였다.

<송유배불>을 근간으로 하는 정책에 반하는 세종대왕을

보고 집현전의 학사들은 왕께 상소를 올리고 불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나는 불교를 좋아하는 임금이다’ 라 하셨다.

세종대왕께서 역사에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은 대왕의 아버지이신 <태종>이었다. 태종은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 주기 전 공신들을 몽땅 처단하고, 상왕시절 심지어 세종의 처갓집인 ‘심씨’ 들을 깨작살내어 쓸어 버렸다. 왕의 장인은 사약을 마시고, 장모는 노비가 된다. 이제 세종은 하고 싶은 일들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거하면, 세종대왕께서는 육식을 매우 좋아하시어, 고기 없이는 식사를 하시지 않을 정도였다 한다. 또 나이 어려서부터 ‘색’ 을 매우 밝히시어 기력이 쇠약하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9가지 성병을 모두 앓은 왕이시다. 성병 부분에서는 단연 최고의 기록보유자이다. 게다가 가계의 지병인 당뇨병으로 평생 동안 심한 고통을 받으셨다. 그 옥체에도 다수의 딸과 십팔(18) 명의 아들이 있었다. 대를 이은 <문종>은 아버지의 덕으로 피부병을 물려 받아 평생을 굶다가 죽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둔 형편 없는 아버지였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힘든 자리가 ‘왕’ 인 것이다.

훈민정음 기록으로 전해오는 글을 보면, 세종대왕께서는 평소에 불교뿐만 아니라 연꽃에 관심이 많아 전국의 유명한 연꽃은 다 찾아 다니셨다고 한다. 세종대왕 나이 사십의 재위 열 여덟 되던 해, 어느 지방에서 쌍둥이 연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곳으로 행차하셨다. 대왕께서는 연꽃 주위를 거닐면서 그 연꽃을 보시면 탄성을 지르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미(집) 시팔년(18년) 동안 ㄹ(재)위 하면서 이년(연) 저년(연) 다 봤지만 저런 쌍년(연)은 처음 보는구나……!!!



정가(正歌)

- 가곡(歌曲)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으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도(道)를 추구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이 생활에서 예술로 승화되어 우리 음악의 흐름에 나타나 있다. 우리 민족은 성품이 어질어서 (仁) 만물을 살리기를 좋아하며 감정이 풍부하고 즐겁게 산다고 했다. 가무를 즐기고, 자연을 지배하기보다는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하나가 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정신이 전통음악에서도 잘 드러난다.

우리의 3대 전통 성악곡으로 가곡, 판소리, 범패를 꼽을 수 있다. 범패는 불가(佛家)를 중심으로 발전한 웅장한 종교음악이고, 판소리는 민중의 발랄하고 꾸밈이 없는 감정이 배어있는 민중음악이다. 가곡은 선비문화를 대변하는 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

선비들이 즐겨 부르던 성악곡들이 언제부터인가 정가(正歌)라고 불려왔다. 정가는 소규모 관현악곡 반주에 시조시를 정악의 기풍으로 노래하는 성악곡으로서 신라 향가를 바탕으로 고려를 거쳐서 조선시대에 발달된 가곡(歌曲), 시조(時調), 가사(歌詞)를 말한다. 양반계층, 선비계층에서 많이 불렸으며 우아하고 정대 화평한 기풍을 지녔다.

가사는 장가(長歌)에 해당하며 장편시에 해당하는 가사(조선시대의 독특한 문학장르)를 정악의 창법으로 부르는데 조선조 후기가 되기 전 가곡보다 뒤에 발생했다. 양반문화의 음악이 민중의 품속으로 일반화되어 가면서 가사 음악의 뼈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현재 12곡이 전승되고 있다.

시조는 3, 4조의 음률을 반복하며 30자 정도를 한 편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3형식을 갖춘 시가의 한 형태이다.

가곡은 만년장환지곡(萬年長歡之曲)으로 불리면서 고려말에 유행하며 조선조 영·정조에 활짝 꽃을 피웠다. 하루에도 매일 새벽과 낮, 저녁, 밤이 반복되고 한 해에는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엄격한 음악구조 속에는 비슷한 선율들이 반복되면서도 계절마다 다양한 선율의 변화를 통한 깊은 맛을 보여주고 있다. 가곡(歌曲)은 시조시를 사설(辭說)로 하여, 다섯 마루 형태에 얹어 부르는 노래 곡조인데, 관현악기-거문고, 가야금, 대금, 피리, 해금, 단소, 장구 등의 반주곡이 붙은 웅장하고 고상한 성악곡이다. 연주 형태는 대어음(大餘音)을 전주하면 노래가 초장(初章), 일장, 이장, 삼장을 이어서 부르고, 다음 중어음(中餘音)의 간주가 마치면, 다시 노래가 사장과 오장을 이어 부름으로 한입(대엽), 즉 한곡(曲)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곡장단은



김종호 원장
김중호신경정신과의원
(포항)

정가를 부르고 있노라면 잡념이 없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없어지며, 복부에 진동을 느끼고 내장이 안정이 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을 느낀다.



3, 3, 2, 3의 11박과 3, 2의 5박이 합쳐진, 16박의 모음박 한 장단과 2, 2, 1, 2의 7박과 2, 1의 3박이 합쳐서 이루어진 10박의 모음박인 한 장단과 두 종류로 형성됐다. 가곡의 유래는 신라의 향가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전통무용인 「처용무」에서도 수레천과 함께 가곡중



언락과 편락을 노래하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계승되고, 조선시대에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본다. 가곡은 궁중과 민간에서 널리 불려왔으며, 역사가 가장 오래 됐다. 곡조에 따라 우조와 계면조로 분류되며, 다른 성악곡들과는 달리 남녀의 노래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가곡이 양성에 대한 특성을 요구하는 음악임을 알 수 있으며, 남창이 26개의 틀이 있고 여창이 15개의 틀이 있다. 각각 부르는 순서와 교창하는 순서가 따로 있고 마지막에는 남녀 합창으로 「태평가」를 부른다.

현재 전창되고 있는 가곡은 금하(琴下) 하규일(河圭一, 1867~1937)의 유음으로 악보 없이 전승되어 오다가, 1930년 이후부터 점차 악보로 기록 정리되기 시작하여 전창(傳唱)의 가곡이 현재까지 악보로 전승되어 오게 됐다. 가곡의 수는 총 155곡으로 남창이 84곡 여창이 71곡이다. 이는 같은 곡조에 몇 개의 다른 사조시를 엮어 부

르는 경우를 모두 합친 곡 수이고, 실상은 41개 정도의 각곡 선율만이 전래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가곡이 2010년 11월 7일 유네스코에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 등재되었다. 가곡은 보존해야 할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가곡이 우리 문화유산이지만 전통 성악곡으로서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필자가 경험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정가를 부르고 있노라면 잡념이 없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피로감이 없어지며, 복부에 진동을 느끼고 내장이 안정이 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을 느낀다. 교육시간 프로그램이 가곡을 배우기 전에 대학, 중용, 주역 등 경전을 약 한 시간 정도 공부하고 가곡을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경전공부를 통하여 정심(正心)을 배우게 되어 진료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2006년 6월부터 결성된 정가 공부모임 명칭이 정심정가회(正心正歌會)이다. 정가를 통해서 정심(正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수가 약 20명이 넘는다. 의사회원으로는 이진수 원장이 최근에 입회하였고 열공 중이다. 공부교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윤용섭 선생님(현 국악진흥원 부원장, 전 포항부시장 역임)께서 매월 2회씩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마다 먼 길을 마다 않으시고 오셔서 지도해 주시고 있다. 2008년 전국 정가대회에서 대상, 2010년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앞으로 있을 평창 동계 올림픽에도 정가(가곡)이 올려퍼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파급되길 기대한다. K-pop이 전세계에 퍼지듯이...

본 원고는 포항시의사회 소식지 제18호(2011. 7)에 게재 된바 있음



울진군의사회 몽골 단기 의료봉사 일지

(2011. 8. 3 ~ 8. 7)

울란바타르의 선진 그랜드 호텔

피로감과 허기진 상태를 면하고 싶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호텔에 투숙을 했다. 모두들 겹친 피로에 바로 잠들었다. 여명이 틀 때 쯤 핸드폰의 알람은 어김없이 작동을 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여니 서늘한 공기에 매캐한 석탄 내음이 진하게 풍겼다. 몽골은 노천탄광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우선은 시내의 몇몇 볼 곳을 먼저 찾아보기로 했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

이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곳을 꼽으라면 박물관을 꼽게 된다. 세계 3대 공룡화석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이 나라의 규모를 간접적으로나마 가늠을 할 수 있었다. 거대한 공룡의 화석은 우리들 모두를 정말로 감탄시키기에 아주 충분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골격이며 감히 상상하기 힘든 골반 뼈들의 화석은 지구 역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어서 나름대로 만족한 관람이었다. 사진을 찍을 수 없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영이는 비록 먼발치이지만 한 컷을 찍는데 성공했다. 일행은 모두 진짜 몰래 카메라를 감상하며 대견한 표정을 감추지를 못했다. 좌우 핸들이 공존하는 울란바타르의 뜨거운 열기는 우리를 몹시도 답답하게 만들곤 했다.

남양주 문화센터

문화관 겸 한인회는 의외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다. 미안마에서의 경험을 살려 나는 한인회 사무실 직원들과 우리 일들을 의논했다. 박 총장과 김 사범의 노력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계획한 대로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매우 유감이었다. 동행한 사진기자는 대 타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이 중 규 원장
울진군의사회장
연세기정의학과의원(울진)



☉ 몽골대사 사모님의 방문

이태준 기념 공원과 자이승 기념탑

우리 일행은 먼저 “이태준 기념 공원”을 찾아보고 목욕을 했다. 공원을 둘러보며 선배들의 행적을 음미하고 그의 뜻을 기리는 일도 원래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공원에서 기념촬영은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내친 김에 일행은 자이승 기념탑까지 돌아보았다. 밤늦게 테레지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우리들은 분명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즐겁기만 했다.

테레지 국립공원

테레지 국립공원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훨씬 넘어선 시각이었다. 어두컴컴한 들판은 도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들 모두는 또 한 번 감탄을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은하수를 끼고 촘촘히 박혀있는 별밤은 몽골여행에서는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의 밤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초원의 별밤을 두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짐을 옮기고 난후 우리 일행은 모두 가장 넓은 게르에 모였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요구한 적도 없었지만 스스로를 격려하고 대견스럽게 여기고 싶었다. 그러기에 별밤은 결코 잠을 청할 수가 없도록 성스럽기만 했다. 준비한 맥주를 마시며 서로간의 협력을 다짐하고 격려하고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려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단합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예쁜 밤이기에 꿈길조차도 아름답기만 할 것 같았다. 꿈 없는 아늑하고 포근한 꿈의 세계로만...

징기스칸 동상과 도시락

지친 여행객에게 새벽잠은 꿀맛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아침 늦잠까지도 여운이 짙게 가는 모양이다. 별밤에 취하고 맥주에 취했으니 당

연히 꿀 맛 같은 아침잠을 만끽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겨우 두어 시간 수면이 전부였다. 오히려 새벽녘의 싸늘한 밤공기가 더 맛있고 달콤하게 느껴지니 기이한 조화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국립공원의 하이라이트인 징기스칸을 만나보기로 했다. 도시락의 메뉴는 아무래도 좋았다. 노변에서 쌍봉낙타를 타보기도 하고 마유주를 마시며 인상을 쓰는 모습들은 개소금 같은 잊지 못할 장면이기도 했다.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낙타를 타는 것만큼 편한 게 없다고 한다. 드넓은 초원을 눈을 부릅뜨고 응시하는 징기스칸의 동상은 매우 인상 깊은 곳이기도 했다. 게르로 돌아오는 길에 삼거리의 벼룩시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초원의 말 타기

초원 음악회는 우리들 최고의 즐거움인 동시에 자연에 가장 접근했던 우리들만의 방법이었다. 반면에 대초원을 무대로 말 등에 올라 이런 저런 정담을 나누면서 한가하게 초원을 돌아보는 승마는 이 나라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준 가장 멋진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서편 하늘로 길게 풀어헤친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한 때의 승마를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행복 바로 그 자체였다. 까르르대는 웃음소리와 만족한 모습의 표정이 파란 하늘과 녹색의 대지는 근 한 시간 동안의 짜릿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마음속 깊이 남겨 주기도 했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려 보았던 일은 정말로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

음악회

녹색 초원의 하얀 게르는 보기에도 소박하고 아늑한 느낌이 들었다. 일행은 각자 소지한 악기를 들고 게르 뒤 쪽의 살랑거리는 바람이 부는 정자로 모이





➔ 초원음악회

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어떤 음악회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보였다. 화음이 맞을 리가 없었지만 것처럼 멋진 음악회는 없었다. 대금의 자진모리 한가락은 주변의 환경과도 너무 잘 어울려서 일행은 모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몽고차량의 운전기사

마술을 준비하고 하모니카 연주와 감미로운 멜로디가 조용한 게르의 분위기를 한층 돋워 주었다. 어제 하루 동안 몽골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낭만에 취한 나머지 진료를 하기보다는 하루 더 자연을 즐기고도 싶었을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었다. 그럴수록 더욱 냉정할 수 있어야 했다. 산부인과 선생님과 소아과 선생님은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망감으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람과 화물이 뒤엉켜서 구겨지고 접히기를 여러 차례나 하면서 겨우 차량은 출발했다. 울란바타르의 남양주 문화관까지 가는 동안 비좁은 차량에서는 온갖 종류의 신음과 괴성을 억지로 참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게르의 몽골인 여자 영어 통역

테레지에서 이틀간 숙박하는 동안 게르의 여자 관리인은 참으로 친절하고 호의적이어서 일행은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게다가 그녀의 영어회화 능력은 관광지엔 잘 어울릴 만큼 아주 훌륭했다. 다만 특이한건 어딘지 모르게 무언가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를 못했다. 인사치레를 하고 난후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면서 물어보았다. 설사를 여러 차례

기 시작했다. 초원 음악회는 이렇게 시작하였다. 드넓은 초원에서 우리 가락이 은은하고도 잔잔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단소, 대금, 하모니카, 해금들의 합주는 정말로 멋진 음악회였다. 초등학교부터 예술이 넘은 중늬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 했다고 하면서 배가 몹시 아프다고 했다. 그녀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몇몇 우리 일행들 역시 깊은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병력을 물어보고 청진기를 통해서 알게 된 소견은 급성 장염으로 판단되었다. 우리 일행은 재빠르게 약품가방을 뒤져 적절한 투약을 하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우리 의료진의 첫 번째 몽골환자였다. 다시 만난 그 몽골 여인은 무척 밝은 얼굴이었고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나 되풀이 하곤 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가 막 차를 타기 전에 다시 만났을 때 이제는 완벽하다는 말을 곁들이며 부디 몽골에서의 좋은 추억을 간직하기 바란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차량 속에서 구겨진 상태로 깜박 잠이 들었다. 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눈이 떴다. 시계를 보니 여유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있었다. 안심이 되었다. 그제야 나는 그 몽골 통역아씨가 생각났다. 마무리치고는 아주 잘못된 오점을 찍고야 말았다. 연락을 취한다는 것도 우습기만 하고 그렇다고 공연히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했다. 기필코 다시 한 번 찾아와서 반갑게 만나볼 수가 있다면 그게 더 멋진 마무리가 될 것만 같았다. 참으로 고맙기만 했는데...

사우나에서

지하의 사우나에서 숙면을 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눈을 뜨고 시계를 보았을 때는 이미 새벽 3시가 지나고 있었다. 샤워를 하고 나니 한결 개운한 기분이다. 정확하게 새벽 4시에 3대의 차량이 한인회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도 반가울 수가 없었다.

출국 심사와 Baggage claim

새벽녘의 울란바타르 공기는 매연으로 매캐한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풍부한 석탄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이 나라의 실정이 공기 중에서 느껴졌다. 새벽공기를 가르며 공항에 도착하니 입국할 때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불확실했던 몽골의료봉사를 마감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한결 마음을 들뜨게 했다. 입국하면서 올려다보았던 징기스칸 공항을 출국하면서 내려다보는 기분이 남달랐다. 공항 대합실에서도 커피를 홀리던 은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혼자서 고심하던 모습이 측은하기만 했다. 그런 와중에 항공기 탑승을 시작했다. 몽골을 뒤로하고...

울진군의사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미 게재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서 경북의사회보 가을호에 게재 합니다. 진료부분과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의 부분은 울진군 의사회 홈페이지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鳳頂庵 - 百潭寺 하산길 龍牙長城 한컷



가을이 되면 그냥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은 산...
 시월의 첫날밤...
 혼자서 심심해 아내를 꼬드겨 설악가는 버스에 오른다.
 불편한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몇번을 뒤척이다 눈부심에 얼굴을 찡그린다.
 새벽2시 한계령 오색...
 코끝 싸한 공기에 뻑뻑한 눈을 씻고 채비를 한다.

내딛는 발끝에 어둠을 밝히고 대청봉을 향한다.
 때 이른 추위에 발을 동동거리며 일출을 맞이하고
 중청을 지나치고 소청담벼락에서 라면 끓여 따뜻한 아침상을 차린다.

봉정암 사리탑에 올라서서 공룡능선, 용아장성을 가슴에 새겨놓을
 요량으로 보고 또보고 여러번 눈을 깜박인다.

백담사 가는길, 내설악 구곡담계곡
 경치좋은 물가에서 뜨거워진 발도 식히고,
 배낭 한구석에서 상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한 족발을 꺼내
 소주 한잔 기울여 아내와 설악의 가을에 흥뻑 취해본다.



장태영 원장
 동산제통의원(구미)

가을철에 유행하는 전염성 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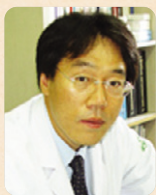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등산, 운동, 가을걷이 등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9월은 추석이 끼어 있어 별초, 성묘 등 야외활동이 많은 때다. 매년 가을이면 추석 명절과 함께 찾아오는 대표적인 풍토병이 렙토스피라증, 신 증후군 출혈열, 쯔쯔가무시병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들 세 질환들이 가을철에서 초겨울 무렵까지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을 괴롭힐 것이다. 따라서 가을철에 유행하는 3대 전염병의 질병별 특징과 치료 및 예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질병별 특징

구 분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정 의	Orientalsusugamush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질환	병원성 Leptospira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질환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성발열성질환
매개체 및 감염원	털진드기와 진드기 유충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흙	설치류(등줄쥐, 집쥐)
잠 복 기	6~18일	5~7일	7~21일
임상증상	가피형성, 고열, 오한, 심한 두통, 발진, 구토, 복통 등	가벼운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웨일씨병(Weil's disease)까지 다양함	발열기, 저혈압기, 핏노기, 이노기, 회복기의 5단계
전파경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피부를 통해 감염	설치류의 타액, 소변, 분변이 공기 중 건조되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감염

유행성출혈열 (流行性出血熱) (epidemic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한탄바이러스 등에 의해 생기는 전염병이다. 연중 생기지만 가을철에 가장 많이 걸린다. 전남, 충남, 전북, 경북, 충북 등지에서 많이 걸린다. 최근엔 새 종류의 한탄바이러스가 발견돼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고열에 이어 단백뇨나 전신성의 출혈 경향 등을 보이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한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무서운 제2종 법정 전염병으로서, 사망률이 7%나 되며 현재 국제학회에서는 신증후군출혈열이라 부르지만 유행성출혈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6·25전쟁 직후에는 한국과 미국학자들이 한국형출혈열이라고 부른 때도 있었다. 환자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중국(40만 명), 러시아(1~2만 명), 동남아 및 유럽에서 수십 년 전부터 발생하였으며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4~7%가 사망한다. 한국에서 처음 환자가 발견된 것은 6·25전쟁 중인 1951년이며 그 후 매년 수백 명의 환자



방 종 호 과장
안동병원 내과

매년 가을이면 추석 명절과 함께 찾아오는
대표적인 풍토병이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쓰쓰가무시병이다.

가 주로 휴전선 근처에서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약 2,000명 이상의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1993년 여름에는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출혈열 환자가 남서부지역에서 집단 발생하여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사망률이 70%나 되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환자가 발생 사망하고 있다.

이 병의 원인은 한탄바이러스속에 속하는 한탄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 푸우말라바이러스 및 무에르토벨리바이러스들의 호흡기 감염으로 시작된다. 한탄바이러스는 1976년 이호왕(李鎬汪) 박사가 세계 최초로 동두천 지역에서 잡은 등줄쥐에서 발견하여 한탄강의 이름을 땀으며, 서울바이러스도 이호왕 박사가 1980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잡은 집쥐에서 제2의 병원체를 발견하여 명명한 것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미생물이다. 유럽에서 유행하는 출혈열의 병원체는 푸우말라바이러스이며 미국의 병은 무에르토벨리라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생긴다.

임상증세로 초기증세는 독감과 비슷하며 전신 쇠약과 식욕부진으로 시작하여 고열(40℃)과 심한 두통 및 복통 등이 있고 3~4일 후에는 눈·코·구강·얼굴 및 가슴 등에 출혈반점이 생긴다. 또 복통과 심한 요통이 있으며 간혹 위장출혈로 맹장염으로 오진되는 수도 있다. 일주일 후에는 신장염을 동반하여 심한 단백뇨와 감노기가 오며 혼수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며 이노기를 거쳐 회복까지 약 1~2개월이 걸린다.

유행시기와 보균동물에 대해 살펴보면 1년 내 전국에서 환자가 발생되며 농촌에서는 봄과 가을 농번기와 건조한 계절에 많이 유행한다. 이

병의 보균동물은 전국에 있는 등줄쥐와 집쥐인데 시골에서는 등줄쥐의 약 15%가 한탄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며 또 도시에 있는 집쥐의 약 12%가 서울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 이런 쥐의 소변과 타액 중에는 다량의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는데 배설물에 오염된 먼지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면 전염된다.

치료 및 예방으로는特效약이 없으므로 발병 초기에 빨리 병원에 가야 하며 출혈이 각종 장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안정이 필요하다. 환자 이송시 특별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방은 들쥐나 집쥐와의 접촉을 절대 금해야 하며 또 쥐의 서식처를 멀리해야 한다. 특히 농민·군인 및 토목공사 종사자가 위험군이며 또 야외에서의 캠핑·낚시·사냥 및 골퍼들도 조심하여야 한다. 집쥐를 정기적으로 잡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들쥐를 잡아 없앨 수는 없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인데, 한국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한타박스'가 있다. 한 달 간격으로 백신을 2번 피하에 접종하면 약 1년간 면역효과가 있으며 1년 후에 재접종하면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유지된다.

쓰쓰가무시병

산에 사는 털진드기 병원체가 사람 몸에 들어와 걸리는 법정전염병이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뒤 1~3주 쯤 지나면 증세가 나타난다. 오한, 발열, 두통, 기침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구토, 인후염이 생기기도 한다. 또 몸에 부스럼 딱지가 앉는다. 림프절이 커지고 전신에 붉은 색의 반점이 생기는 것도 특징이다. 등산이나 야외활동을 하고 1~3주 쯤 지나 감기증상이 있거나 감기가 쉽게 낫지 않을 땐 이 병을 의심해봐야 한

다. 발생 초기엔 일주일 쯤 약물치료를 받으면 비교적 쉽게 완치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두면 뇌막염, 폐렴 등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쓰쓰가무시병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걸리는 병인만큼 유행지역을 피하거나 긴 옷을 입고 야외활동을 하는 게 예방의 지름길이다. 또 들쥐가 사는 곳을 피하고 야외활동 뒤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하는 게 좋다.

렙토스피라증

렙토스피라균에 의해 생기는 세균성질환이다. 렙토스피라증에 걸린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이나 풀, 흙 등을 통해 걸린다. 주 감염원은 설치류다. 그래서 쥐로부터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점막이나 상처 난 피부에 오염원이 닿았을 때 걸린다.

이 병은 추수기인 가을철에 많이 걸린다. 농촌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특히 걸실기에 홍수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묶는 일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 홍수가 나면 쥐 굴속에 갇혀있던 렙토스피라균이 씻겨 오염된 물이 벼 앞에



스쳐서 벗겨진 다리, 팔, 손의 상처에 닿기 때문이다. 렙토스피라증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7~12일 걸린다. 대부분 급작스럽게 열이 난다. 이 병은 2단계에 거쳐 나타난다. 초기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을 하게 된다.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2단계로 가면 곤란해진다. 증상이 심해져 신장이나 간 손상, 뇌막염 등을 일으킨다. 이 병은 상당수의 경우 직업과 관련해 생긴다. 야외활동이 많고 하천 등지에서 일하는 농부, 하수구 노동자, 어부, 낙농업, 군인 등의 감염확률이 높다.

이밖에도 야외활동이나 캠프활동, 야외스포츠 등의 활동 때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 오염된 호수나 강에서 수영, 래프팅, 물에서 걷기 등을 통해 생기기도 한다. 렙토스피라증 예방을 위해선 동물소변에 오염됐을 것으로 보이는 물에서 수영하거나 걷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오염된 물이나 흙에서 작업할 땀 장화나 옷을 잘 챙겨서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한다. 특히 농경지의 고인 물엔 손발을 담그거나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유행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개인위생 지침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도 건강한 한해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전한다.

가을철 급성전염병 예방 및 개인위생 수칙

- | | |
|------------------------------|---|
| 1. 풀밭에 함부로 눕지 말 것 | 8. 전염위험이 높은 사람(군인, 농부 등)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 |
| 2. 풀 위에 이불·옷 등을 말리지 말 것 | 9. 피부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야외 활동 전 긴 소매의 옷과 바지를 착용하고 바지끝, 소매끝, 허리띠 부위에 곤충 기피제(dimethyl phthalate) 또는 benzyl benzoate 등을 뿌릴 것 |
| 3. 농경지 고인 물엔 손발을 담그지 말 것 | 10. 신증후군 출혈열이 의심되는 환자는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것 |
| 4. 야외활동 뒤엔 옷의 먼지를 털고 샤워할 것 | |
| 5. 장화, 장갑, 긴 옷 등 보호 장구를 갖출 것 | |
| 6. 쥐의 배설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 |
| 7. 전염병 유행지역에 가지 말 것 | |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1년 7월 ~ 10월)

포항시

이 해 철 _ 오천제동신경외과의원
(790-906)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4리 833-8
T. (054)292-7585 / F. 292-7587

박 영 대 _ 동산요양병원
(791-947)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1리 196-1
T. (054)262-0770 / F. 262-0775

경주시

김 재 평 _ 제일연합의원
(780-460) 경주시 시래동 372-2
T. (054)776-7500 / F. 776-7501

김천시

정 무 찬 _ 김천남산종합의원
(740-973) 김천시 남산동 12-6
T. (054)435-2111 / F. 434-7301

윤 진 호 _ 메이드미성형외과의원
(740-983) 김천시 평화동 264-27 4층
T. (054)433-7572 / F. 431-7572

안동시

의료법인인덕의료재단북주요양병원
(760-801)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3
T. (054)851-5000 / F. 853-9229

구미시

박 준 용 _ 구미정형외과의원
(730-923) 구미시 원평1동 336-18
T. (054)457-4794 / F. 458-4958

김 나 리 _ 해민내과의원
(730-932) 구미시 황상동 314-20 순현빌딩 5층
T. (054)476-7582 / F. 476-7578

김 영 찬 _ 엘지디스플레이1단지 부속의원
(730-726) 구미시 진평동 642-3
T. (054)717-0888

영주시

송 용 철 _ 해인의원
(750-916) 영주시 휴천3동 673-9
T. (054)634-7511 / F. 634-7512

상주시

김 수 미 _ 용한연합내과의원
(742-903) 상주시 남성동 12-10 2층
T. (054)535-8870 / F. 535-9545

문경시

김 은 경 _ 성모의원
(745-886) 문경시 점촌동 142-1
T. (054)556-1001 / F. 553-2290

경산시

권순렬.이선민 _ 한마음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712-804) 경산시 중방동 863-9 참좋은의사들빌딩 3층
T. (053)795-1119 / F. 795-0119

김세환.서광운 _ 경대연합용한속내과의원
(712-804) 경산시 중방동 863-3 2층
T. (053)817-8811 / F. 817-8810

고령군

배 병 진 _ 장시원외과의원
(717-801) 고령군 고령읍 쾌빈1리 469-1 셋별빌딩 3층
T. (054)955-0119 / F. 956-0115

성주군

여 주 천 _ 성주경대연합내과의원
(719-801)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38-4 2층
T. (054)933-0500 / F. 933-0530

정 성 욱 _ 성주연합정형외과의원
(719-801)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600-1
T. (054)931-9115 / F. 931-8814

울진군

백 용 현 _ 울진군의료원요양병원
(767-805)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119
T. (054)785-7000 / F. 785-7020

병원 임대



소재지 대구시 달성군 현풍 하리 45-1

평수 385.04평 (신축건물, 인테리어 완비)

희망과

- 정형외과 (1층, 3층, 4층)
- 내과,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 (2층: 각 43평)

**임대
문의**

**010-3504-3569
011-526-1693**



채무초과로 인한 어려움-회생의 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의 전문직 회생 법률 서비스

▶ 전문직 회생이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
- 전문직 자격(사업자)을 유지하면서 정상화 진행 /일상적인 금전 거래 가능
-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방지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나머지 부채 탕감 가능

▶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 회생 업무의 강점은?

-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대구·경북 유일의 법무법인소속 회계사)가 공동으로 회생 사건 진행
- (주)씨앤유방 등 다수의 기업 및 개인 회생 사건으로 인해 축적된 전문지식
- 전문적인 상담 및 회생신청 이후 회생계획안 통과시까지 지속적이고 밀착된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우리 하나로와 함께 하시면,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Value added service for clients!!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 호 사 권태형·성상희·정재형·남호진·김수호
김관목·진광석·황태운·노승진·김민정
공인회계사 권진욱

사무실 ■ Tel.053)587-3800 Fax.053)588-3806
담당직원 :윤종민 과장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 4mg

효능 · 효과

1. 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2. 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3. 교환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내분비 장애 5. 류마티스성 장애
6. 안과 질환 7. 위장관계 질환 8. 호흡기계 질환
9. 혈액 질환 10. 악성 종양성 질환 11. 부종성 질환 12. 신경계 질환 13. 기타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 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